

여야 정치인들 5·18 광주로 광주로

정세균 국회의장·추미애 대표·안철수 전 후보·박원순 시장도 정권교체 후 첫 기념식 ... 국민연방 지도부 전야제도 참석

여야 지도부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5·9 대선으로 정권이 9년여 만에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가능성이 커져 더 관심을 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 등 집권여당 지도부는 5·18 기념식에 총출동한

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호남이 바라는 정권교체를 이룩한 정당으로서 새 정부의 개혁과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18일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전남대 대학본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열리는 '융복합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20대 국회의 비전'을 주제로 특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과 이현재 정책위의장, 박맹우 사무총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등 제1야당 지도부도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는 휴식차 미국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방 지도부는 5·18 추모행사에 이들의 일정을 할애했다. 신임 김동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7일 오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유동사거리와 금남로 일대에서 각각

열리는 민주대행진과 전야제 행사에 합류한다. 이어 18일 본 기념식에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구 정책위의장, 정병국 전 대표,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정운천 의원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의 대주주 격인 유승민 전 대선후보와 김무성 의원, 김세연 사무총장은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에서는 대선후보였던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18일 기념식에 관련한 참석할 예정이다.



조선태 장미정원 장미꽃 활짝 16일 장미꽃이 만개한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태 장미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산책하고 있다. 제15회 조선태 장미축제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여성어업인 육성에 5년간 1200억 투입

여성어업인 단체·수협 여성임원 확대 행복바우처 늘리고 어가도우미 지원도

전남도가 지역 내 여성어업인들의 전문성 향상,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성어업인 지원본부 유치, 수협 임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비율 확대, 관련 단체 지원 등에 나선다.

전남도는 16일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역할 확대를 위해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전남여성플러지의 '전남 여성어업인 생활실태 연구결과',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작성됐다.

전남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살고 싶고, 소득 높은 어촌경제의 주역'이라

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2개 분야, 27개 단위로 과제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1209억 원을 들여 전남 전체 어업인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위상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 여성어업인은 2016년 기준 2만1606명으로 전체 어업인 4만4262명의 48.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여성어업인 6만2701명의 34.5%가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3대 전략별로는 여성어업인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어업인 단체 확산, 수협 여성 임원 및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

율 확대, 여성어업인 지원본부 유치 등을 추진한다.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 맞춤형 교육, 성공사례 발굴·전파, 단체 활동 강화, 여성친화형 작업 기판 구축 등에 나선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선 행복바우처 확대, 어가도우미 지원, 섬 지역 어업인 자녀 특성화 교육, 결혼이민 여성 모국 방문 등을 추진한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마련한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전남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업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여성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18정신 헌법 전문에 명기 본격 추진

5·18헌법계승운동본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개헌 시 헌법 전문 명기 추진에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헌법전문수목을 위한 광주운동본부'(5·18헌법계승운동본부)는 16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계승 및 헌법전문명명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5·18헌법계승운동본부(상임대표 이성길 전 5.19구속부상자회장, 김재형 조선대 법학대학장, 안종철 전 광주시 인권을무브)는 문재인 대통령의 5·18관련 공약 중 특히 5·18정신의 헌법전문 반영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제에 나선 안종철 박사는 "헌법적 가치가 국민의 기본권 강화 및 민주주의·인권향상 취지임을 감안, 5·18민주

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필요성 등을 연구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민간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 수록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광주 차원의 자체 검토에 현실적 한계를 감안,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헌법학계, 정치학계 등 학계를 통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여론형성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차원의 진상규명, 민주인권평화 기념사업 등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구여권의 반대와 5·18 왜곡 폄하 단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예상된다"며 "민간이 나서 정부의 의지를 견인하거나 뒷받침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박철홍 전남도의원

어린이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해마다 그 실효를 분석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

의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는 휴식과 여가·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철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예를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 한 달에 하루 '수업 없는 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어린이의 질 권리·놀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서 "어린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 농협경제지주가 운영

나주에 들어설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 운영자로 농협경제지주(주)가 결정됐다.

전남도는 16일 "나주시와 농협경제지주(주)가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앞으로 5년간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협력과 물류센터 조기 활성화 지원에 나서고, 농협경제지주는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개척

하고, 도민(나주시민)을 우선 고용하게 된다.

그동안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위탁운영주체로 농협경제지주를 선정하고 농협경제지주 실무진과 협약을 위한 세부 논의를 해왔다.

나주 산포면 내기리에 건립 중인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2만 9908㎡ 부지에 건축면적 1만3644㎡로 국비 146억원, 도비 73억원, 나주시비 73억원 등 사업비 292억원을 들여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www.joytour.kr

무안출발 일본여행

이 가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특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일본여행
이제 무안에서 출발하세요~!

〈주말 출발〉 항공 왕복 2박3일 큐슈여행 ♪ 기간:5.12~6.6

| | |
|----------------------|--------------|
| 1.뱃부, 유후인, 아마가세 온천편선 | 1인 ₩499,000~ |
| 2.뱃부, 유후인, 일본 전통료칸 | 1인 ₩699,000~ |
| 3.기타큐슈, 야마구치, 시모노세키 | 1인 ₩699,000~ |
| 4.기타큐슈, 가라츠, 우레시노 | 1인 ₩699,000~ |

〈평일 출발〉 선박+항공으로 떠나는 큐슈여행 ♪

| | |
|----------------------------|--------------|
| 1.(매주 수요일 출발) 선박+항공 북큐슈 3일 | 1인 ₩299,000~ |
| 2.(매주 화요일 출발) 선박+항공 북큐슈 4일 | 1인 ₩399,000~ |

★불포함사항 : 기사, 가이드 경비(₩30,000/인), 국내수송(₩35,000/인)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TEL:062-234-3222 FAX: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이사 최금환

NAVER 조이투어 검색

여행경비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항공 및 전철역 / 상의요구권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보험 가입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항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